당신의 꿈을 찾아 드립니다.

기획의도: 사람들에게는 사실 꿈보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.

#S1 대학교 광장 /오후 1시30분

맑은 하늘 아래 대학교 광장,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다. 그 중 맑은 하늘이 미안함을 느낄 정도로 우두커니 혼자 서있는 영선 영선은 초점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.
순간 영선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린다. 영선은 자연스레 핸드폰을 확인한다.

> (카톡)엄마: 우리 아들! 공부 잘 하고 있지? 엄마는 아들이 대기업 취직만 하면 더 이상 꿈도 없다! 우리 아들 파이팅!

영선은 대충 읽기만 하고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다.

> 영선:(한숨을 쉬며 억지로 기운을 내려는 듯이) 아~ 배고픈데 김밥이나 사먹고 공부해야겠다.

영선은 바로 뒤에 있는 학생회관으로 들어간다. 학생회관 매점으로 가는 중 영선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잠시 멈춘다. 영선은 뒤로 살짝 돌아간다. 영선은 동아리 게시판을 올려 보고 있다.

> (포스터)
> 당신의 꿈을 찾아 드립니다!
> 꿈을 찾는 사람들 꿈찾사 동아리에서
> 9/20일 오후2시에 당신의 꿈을 찾기 위한 특강을 진행 합니다
> 많은 관심 부탁 드려요.
> PS 포스터를 가지고 오시면 음료수 드립니다!

영선은 잠시 포스터를 바라 보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한다. 시간은 9/20일 1시 50분을 가리킨다.

> 영선: 뭐야, 오늘 이자나...

시간을 보고 그냥 가려던 찰나 폰에서 진동이 울린다.

> (카톡)취업스터디: 오늘 취업스터디 3시로 연기 된 거 다들 기억 하시죠? 혹시나 해서요 있다 뵙겠습니다.

영선은 포스터를 뜯는다.

#S2 동아리방

횡 한 방안에는 의자 몇 개와 테이블 하나가 초라하게 놓아져 있다. 영선은 다 마신 음료수를 손에 들고 혼자 혜린과 마주보고 앉아 있다. 혜린은 말없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 옥 의 티처럼 걸려 있는 시계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다. 시계는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.

혜린: 이제 더 이상 안 오나 봐요ㅎㅎㅎ...

혜린은 쌓아놓은 음료수를 바라본다. 다시 영선을 보며

혜린: (밝게)아차! 저는 꿈을 찾는 사람들 동아리 회장 박혜린 이라고 합니다!!
혜린: 어쩌다 보니 1대1 특강이 돼버렸네요ㅎㅎㅎ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
영선: 저는 김영선 이라고 합니다!
혜린: 그럼 영선씨! 시간도 지났으니 더 올 사람도 없는 거 같고. 바로 특강 시작 하겠습니다.
영선:네, 근데..

영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린은 꿈을 찾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 용지를 영선의 얼굴에 들이민다.

#S3 학교광장

영선이 서있었던 학교 광장 어째서인지 아까보다 사람들은 더 분주해 보인다. 밝은 색깔에 파랑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은 혜린과 대비되게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영선. 혜린은 용지를 보고 있다 용지에는 첫 번째 이성의 번호 따기라고 적혀있다. 혜린은 고개를 들어 광장을 바라본다. 혜린은 많은 사람들을 보며 흡족해하는 표정을 짓는다. 영선은 의아한 표정으로 혜린을 바라본다.

혜린: 영선씨 여자친구 있으세요?
영선: 네? 없는데요.
혜린: 그럼 번호 따 보신 적은요?
영선: (뭔가싶은 표정) 없는데요.
혜린: (웃으며)다행이네요ㅎㅎㅎ
혜린: 그럼 꿈을 찾기 위한 첫 단계 이성의 번호 따기 시작할게요!

영선은 어이없다는 듯이 혜린을 바라본다.

혜린: ㅎㅎㅎ꿈 찾고 싶어서 특강 오신 거 자나요! 그럼 한번만 믿고 따라 와주세요!

혜린은 영선의 등을 떠민다. 영선은 등 뒤로 혜린을 바라보다 포기한 듯 걸어간다.
영선은 한 여성에게 다가간다. 혜린은 뒤에서 만족스럽다는 듯이 바라본다. 영선은 몇 번 여자들과 대화를 하다 불만스럽게 혜린 쪽으로 걸어온다. 그런 영선을 무시 하는 듯 혜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.

혜린: 좋아! 오늘은 하늘이 아주 맑네!

#S4 학교광장 잔디밭

끝도 없는 하늘이 보인다.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수근 대는 소리가 들려온다. 영선은 고개를 돌려 혜린을 바라본다. 혜린의 얼굴이 있기 전 많은 잔디들이 영선의 눈에 들어온다. 잔디들 사이에서 보이는 혜린의 얼굴은 마냥 어린아이 같이 행복해 보인다. 영선은 못마땅해 한다.

영선: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죠?
혜린: (편안한 느낌으로)뭐긴요! 잔디밭위에 누워 있자나요!ㅎㅎㅎ

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영선은 일어난다. 영선은 몸에 잔디를 턴다.

영선: (혜린을 내려다보며) 지금 장난해요? 한번 믿어보라고 해서 믿었는데
생전 안 해본 번호를 따라고 하질 않나, 이제는 주위에 사람들 다 돌아다니는데
잔디밭에 누워 있고 장난도 정도껏 해야지

혜린:(눈치 없이)에이 번호 못 따서 그래요? 그건 괜찮아요ㅎㅎㅎ
영선: 더 이상 당신 장난에 놀아날 생각 없으니까 그만 갈게요

영선은 누워있는 혜린을 뒤로 한 채 걸어간다 그런 영선의 모습에 놀란 듯 혜린은 다급히 일어난다.

혜린: 잠시만요! 어디 가세요!
영선: 취업 스터디 갑니다. 이제 신경 끄세요
혜린: 아니 그게 아니라.. 꿈 찾고 싶다고 하셨잖아요! 아직 안 끝났는..

영선은 잠시 멈춰 섰다 뒤돌아 혜린을 바라본다.

영선: 제가 진짜 이 말은 안 하려 했는데 네 맞아요 꿈 찾으려고 했습니다. 저는 적성검사라든가 전문적인 상담이라도 받는 줄 알았습니다. 먼지 밖에 없는 동아리에서 그런 걸 바란 제가 잘못이네요 그럼 진짜 갈게요. 혼자 그 장난 열심히 하세요.

영선은 다시 뒤돌아 간다.

혜린:... (억울한 듯 격하게)적성검사 같은 거 이미 어렸을 때 다 한 번씩 해봤잖아요!
영선:...
혜린: 그래서 답이 나왔나요?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은 하세요?
영선:...

영선은 계속 걸어가다.

혜린: 봐봐 기억도 못하면서.

영선은 계속 걸어가다 뭔가 기억 난 듯 멈춰 선다.

영선: (나지막하게)기억하거든요..
혜린: 네?
영선: 기억한다고요!

영선은 뒤돌아서 혜린을 본다.

영선: 그냥 잊고 싶었어요. 그래서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.

혜린은 말없이 영선을 바라본다.

영선: 전 사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. 운 좋게 적성 검사에서도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나왔었죠. 그 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, 너무 좋아서 바로 부모님께 달려가 보여주면서 말 했어요 멋진 화가가 되고 싶다고요... 근데..., 너무 좋았는데..,

영선은 기억을 털어내듯 고개들 흔들었다.

영선: 그래서 지금 이것들과 무슨 상관이죠?

혜린은 지금까지 활기찼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. 그런 혜린을 본 영선은 왠지 모를 미안함이 느껴졌다.

혜린: 저는요 사실,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..
영선:...
혜린: (확신하듯)저희에게 필요한건 사실 꿈이 아니라 용기에요!
혜린: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바라보든 순수하게 꿈 자체를 꿈 꿨었잖아요.
혜린: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시선과 철이 든다는 이름 아래 사람들은 꿈을 감추 고 심지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해요. 기억 한다 해도 꺼낼 용기도 없을 거에요.

영선은 말없이 혜린을 바라보고 있다.

혜린: 그래서 전... 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, 주변 의식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만 의 길을 가는 용기요.
혜린: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번호 따는 게 뭐 어때요 용기 없어서 기회를 놓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변에서 좀 수근 거리면 어때요! 이렇게 맑은 날 자연을 앞뒤로 하고 하늘을 바라 볼 수 있자나요. 다름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하지 못하는 것 이제 지긋지긋 하지도 않나요?
영선: 저기...
혜린: ...이제 끝이네요. 취업스터디 가셔야죠

감정에 북받친 듯 혜린은 뒤돌아 걸어간다

영선: 저기요!

순간 영선의 폰에 전화가 온 다 폰에는 취업스터디라 적혀있다 시간은 3시를 넘었다. 영선은 잠시 고민하다 이내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혜린을 향해 뛰어간다. 영선은 혜린을 잡는다.

영선: 저기요 다음 단계는 뭔데요...

혜린은 뒤를 본 다. 웃고 있는 혜린의 모습이 보인다.

#S5학교 뒷산 정자/저녁

어느덧 시간이 지나 해가 산 밑으로 모습을 감추고 있다. 혜린과 영선은 아무도 없는 뒷산 꼭대기 정자에 서서 앞에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. 밑으로는 산과 학교가 보인다. 둘의 표정은 밝아 보인다.

혜린: 어서해요!
영선: 이제 마지막이죠?

혜린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. 영선은 정자위 난간위로 올라간다. 영선은 위태롭게 올라서 있다. 혜린은 영선이 떨어질까 한 손으로 영선을 잡아주고 다른 손으로는 그런 영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.

영선: 내 꿈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가이다~~
영선: 누구도 날 막을 수 없다~~
영선: 지긋지긋한 시선의식 이제는 끝이다~~~

영선은 부끄럽다는 듯 난간위에서 내려온다. 혜린과 영선은 시선이 마주 친다 둘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트린다. 이내 둘은 앞을 바라본다.

영선: 고마워요.. 오늘 정말..

혜린은 말없이 웃는다.

혜린: 내려 왔는데 손 안 놓으실 꺼에요?

영선은 다급히 손을 놓는다. 재밌다는 듯이 웃는 혜린.

혜린: 잡아도 되요!
영선: 네?
혜린: 손잡아도 된다고요.

조심스럽게 손을 잡는 영선

영선: 번호가 뭐에요?

산 넘어 둘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. FADE OUT 버튼 누르는 소리~